제49회 일본전문가 초청세미나

일본의 입장에서 본 한국의 안보정책

스즈키 히로시(鈴來洋志) 일본대사관 방위주재관

기본적으로 한미 동맹을 중심으로 강의를 하고 이 의견은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내용이 아니라 개인적 의견임을 밝힌다. 강연의 핵심은 지금의 한미 동맹을 계속 이어 나아가느냐 하는 것이다.

1882년에 조선과 미국은 처음 조약을 맺었는데 이 당시에 미국은 한국보다 일본에 더 많은 관심을 보였고 특별히 한국을 위한 정책은 없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냉전에까지 이러한 현상은 이어졌고 공산국가조차 미국의 방위선은 일본까지라고 생각을 했었다. 그러나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자 미국은 한반도, 대만, 필리핀에 군을 파견하고 증가시켰고, 이를 계기로 일본은 경찰 예비대를 만들었고, 이 것이 보안대를 거쳐 지금의 자위대가 탄생하게 되었다. 이 당시 미국은 한반도 전쟁을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의 전쟁으로 이식하였다.

전쟁 발발 후 한국의 초대 대통령 이승만은 미국에게 작전권을 넘겨주었고 이 전쟁을 계기로 한미 강화조약, 미일 안보조약이 생겨났으며 일본의 경제에도 큰 영향을 주었다.즉 한반도의 안보가 일본에 여향을 주기 시작한 것이다.

주한 미군은 한반도를 위해 주둔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정부에게 미군의 주둔을 강력하게 요구하였고, 당시의 전략상으로도 미군의 한반도 주둔은 중요했기 때문이다. 주일 미군의 경우, 일본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은 70%가 오키나와에 집중되어 있는고, 지정학적 유리함이 주둔의 이유였다.

한반도 전쟁 이후, 미국은 한국과 일본의 협조를 요구하였다. 특히 일본에게는 한국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라고 요구를 하였는데, 이는 한국의 안보가 일본의 안정에 중요하다는 논리와 함께하였다. 베트남전 발발 후, 미군은 군사적 이유로 1개 사단을

한국에서 철수하였고, 이를 거부한 한국정부에게 군사적 지원을 하는 동시에 일본에게는 한국으로의 군사적 지원을 하도록 압박을 가하였다. 그 후 카터 대통령시절에는 한미 연합사를 설치하게 된다.

냉전 시대에 미국은 한국에는 군대를 육성하고, 일본에는 기지제공을 요구하였는데, 러시아의 붕괴 후, 탈냉전이 시작되자 일본의 군사적 위치는 작아졌다. 오키나와에서의 미군의 RAPE 사건으로 반미 감정이 달아올랐지만, 미군으로부터 오는 경제적, 치안적 이익을 강조함과 동시에 일미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듯한 노력으로 미일동맹을 다시 굳건한 위치로 되돌려 놓았다. 반면에 한국은 냉전이 끝난 후에도 북한 이라는 위협이 그대로 존속하게 되었고, 한미 동맹은 계속 지속될 수 있었다. 이 점이 한국과 일본의 다른 점이다. 이 후 미국은 일본에게 미국의 해외 출병 지원을 요구하기 시작했고, 경제적 발전을 이룬 한국에게도 미군을 위한 원조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한반도에 두 가지 큰 변화가 일어났다. 하나는 김대중 방북으로 인한 공산주의에 대한 적대감의 변화이고 다른 하나는 미국의 전략적 변화이다. 이것은 미군의 군사태세를 재편성하기 때문에 한반도에 영향을 주는 것이다. 미군은 2008년경에 병력을 철수하기로 했고 김대중 노무현 정권은 자주 국방의 자신감을 내비추었다. 이런 상황을 볼 때 지금이 ‘왜 미국이 한국에 필요한가를 다시 검토해볼 시기’라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일본은 한미동맹에 대해 간섭을 할 수 없고, 한미 관계의 악화가 미일관계의 득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한미일의 삼각 공조가 일본에게 이득이 된다. 또한 한국은 연합사를 거부하고 있지만 연합사는 매우 효율적인 기구라고 생각한다.